

못잊을 그날의 사연

1993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백벌을 찾으시였다.

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일군이 가져다드린 지팽이를 보시고 내가 이 지팽이를 짚고 인민들앞에 나서면 우리 인민들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할 말도 못한다고 하시면서 깊숙이 건사해두라고 뜨겁게 이르시였다.

위대한 수령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였다.

지금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을 무한한 걱정속에 새겨보며 그이의 숭고한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불같은 맹세를 다지고있다.